



전주대,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8일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제5회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내 우수기업을 알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채용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취업 성공 전략을 찾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 전북지역 청년과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19팀(총 50명)이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약 4주간의 사전교육과, 도내 일자리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채용제안서를 완성했다.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 총 10팀을 선발, 본선에서는 제안 기업 담당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상(상금 150만 원) 1팀,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 2팀, 우수상(상금 70만 원), 장려상(상금 50만 원) 4팀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대박진조팀 박소연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기업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출 수 있고, 또 발표 역량까지 배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고, 앞으로 목표로 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성장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행 센터장은 "청년들에게 도내 우수기업을 알리고, 기업에는 도내 청년들의 우수한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졸업생 발전기금 기부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졸업생이 30일 학과 발전기금 942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는 인공지능학과 교수 6명과 상급교육과 졸업생 Agro AI학과 석사과정 졸업생 인공지능학과 재학생 일동생이 함께 인공지능학과의 실험·실습, 학습활동을 지원에 뜻을 모아 이뤄졌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인공지능학과장 송주환 교수, 권수태 교수, 이근호 교수, 고선우 교수, 김영수 교수 등 교수 5명과 Agro AI학과 석사 20학번 이수아 졸업생과 인공지능학과 21학번 권원형 재학생이 함께했다.

송주환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교수님들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이 학과를 위해 함께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인공지능학과가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난 27일, 지리산국립공원 일원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기업인 (주)수이케이의 BSC경영을 위한 육상탄소흡수원 조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육상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주)수이케이, 지역자원봉사자 등이 참여, 철쭉 등 자생식물 식재 및 쓰레킹(쓰레기를 주우며 트레킹하는 활동) 캠페인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주)수이케이는 BSC경영 활동과 국립공원의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빼어난 백사골계곡과 지리산 천년송이 있는 와운명품마을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역기업의 BSC경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년농 스마트팜 일손돕기

전북농협·한국농수산대, 김제 혁신벨리 찾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대행 김승희)는 30일 공동으로 김제 스마트팜 혁신벨리에 위치한 청년농 스마트팜을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토마토 수확, 상추 정식 및 시실 견학 등을 하며 미래 농업인으로서 스마트팜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 혁신의 현장인 스마트팜에서 한국농수산대 학생들과 청년농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적인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전북농협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생,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목련회,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8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2022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과 자녀 30여 명은 전북은행과 국립임실호국원이 결연을 맺고 있는 321~322구역 6·25참전군인 묘역 총 1,549기에 직접 태극기를 꽂고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후 참가자들은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제공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행 목련회 김태희 회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공유자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 여직원으로 구성된 목련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역 5개 기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간담회

전라북도 응급의료에 담당하는 책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지역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 전북소방본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전라북도 응급의료 책임자들이 모여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사업수행 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 최민철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황용 교수 등을 비롯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의료진 및 전라북도 구급대원 100여 명이 참석해 타 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사업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원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에서는 여름철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을 지킬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자원봉사는 배치 전 사전교육 후 현장에 배치, 7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리산 뱀사골에서 수난사고 예방 활동 위주의 수상·수변안전 감시활동, 인수사고방지 안전 조치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자격증 등 서류를 지참해 소방서 방문 및 1365자원봉사 포털·전화·Fax·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30-826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희철 원장은 "이번사업의 권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데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라북도 응급의료 체계의 든든한 기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 아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책임지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보건소, 노인요양시설 결핵검진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제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4개소 약 4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노인들에게 식사와 신체활동을 제공했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건강상태가 저하된 노인층에서 결핵이 다수발생하고 있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노인들의 생활주거지로 직접 찾아가는 검진 시 흉부 X-선 촬영 후 결핵이 의심되거나 유소견자의 경우는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는 상담에서부터 치료까지 무료로 지원되는 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김동욱 교수, 의료가기의 날 국무총리 표창



전북대학교 김동욱 교수(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제15회 의료가기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국내 의공학 분야에 공인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의료가기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우수 기술인재 배출에 기여하고, 감각-운동 통합형 재활 의료가기의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가기 산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김동욱 교수는 대한의공학체공학회 제28대 회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가기위원회 위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험관리기술 전문위원, 체외진단의료가기 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가기허가심사 전문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의공학 분야의 학술업적으로 2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학 내에서도 큰사람교육개발원장, 대학지율역량강화사업(ACE+) 단장, 고령친화복지기기연구센터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방사선과, 전북대병원서 현장실습

전주비전대학교 방사선과 48명의 학생들은 지난 27일 문용규 부총장 구본열 교수 이승재 교수 등의 지도 하에 전북대병원을 찾아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관련 주요 장비들을 실습·체험하고 방사선사의 직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은성 의료기술실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서 김 실장은 "방사선영상장비를 활용한 의료 진단/치료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방사선을 활용한 전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공부하며 창의적 관심을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양사은 학생은 "전북 최고의 병원인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방사선 관련 여러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환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50+세대 위한 남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남원시는 지난 24일 남원 은퇴자 작업공간(2호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자로 비영리법인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성사업은 뉴질랜드의 남자의 헛간(Men's Shed)에 착안, 개개인이 쉽게 살 수 없는 기계나 대형장비를 갖추고 은퇴자들이 쉽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한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19년 산내면 입석리에 은퇴자 작업공간 '목포도 공방(사단법인 한생명 운영)'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사내권 은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사내권에 작업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총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정동에 60평 규모의 작업공간(2호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협·소년한국일보, 초등학생 금연골짓기 공모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와 소년한국일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골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는 오는 7월 18일까지며, 초등학교 2~6학년이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본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장점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금연 성공기 △생활 속 흡연(갑담흡연)에 대해 보고 느낀 점 △금연 전도사: 건강 지킴이로서의 경험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흡연 예방 및 금연의 중요성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출품 글 분량은 200자 원고지 7장 인폭이여 읽고 지형식의 전산 작성도 가능하다. 접수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58 석탄회관빌딩 2층 소년한국일보 교육문화사업부) 또는 이메일(sonyohk@daum.net)로 하면 된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8월 중 건협 홈페이지, 소년한국일보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